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

핵심 구절: “*믿음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반은 백성들
가운데서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더라.*”

사도행전 6:8

선정된 성경 구절:

사도행전 6:7-10; 7:1-60

스테반의 순교는 오순절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초기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던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평화와 성장의 시기는 신자들이 곧 닥칠 시련을 대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스테반의 죽음은 교회에 대한 박해의 시작을 알렸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죽기까지 신실함을 지켜야 한다는 소명을 보여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0

원래는 교회의 실질적인 필요를 돕기 위해 선택된 스테반은, 탁월한 영적 힘과 재능을 지닌 사람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사도행전 6:5).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사랑, 열정은 그를 진리의 효과적인

증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거룩한 영은 너무나 뛰어나서, 반대자들은 그를 상대로 논쟁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6:10

그의 논리를 이겨낼 수 없었던 원수들은 거짓되고 왜곡된 증언을 통해 그를 산헤드린 앞에 세웠다. 사형에 이를 수도 있는 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두려움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순결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드러났다. 기록에 따르면, 공의회에 앉아 있던 모든 사람이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았다.” 사도행전 6:15

사도행전 7:2-53에 기록된 공의회 앞에서의 스데반의 연설은 용기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을 모두 보여주었다.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청중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를 거부한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지적하였다. (사도행전 7:51-53)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격분했다. 스데반은 그들의 분노가 치솟아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버텼다. 그는 하늘의 영광을 보는 환상을 받았으며,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선포했다. 이 말은 고발자들을 자극하여 재판을 끝내고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다. 타르수스의

사울도 그 자리에 있었으며, 그 행위에 찬성했다.
사도행전 7:54-60

죽어가는 순간, 스테반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돌리지 않도록 간구했다. 이 점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반영했다. 60절은 그의 죽음을 ‘잠’으로 묘사한다. 스테반은 부활을 굳게 믿었으며, 때가 되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는 표현은 구약성경에 거의 40번이나 등장하며, 죽음의 잠을 가리킵니다.

사탄에게 괴로움을 당하던 욥은 부활의 아침이 올 때까지 죽음의 잠 속에서 안식을 얻기를 간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무덤에 숨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덮어 주시기를! 무덤에서 지낼 시간을 정해 주시고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기를!”(욥기 14:13) 예수님께서서는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인자의] 음성을 듣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욥의 말을 확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28, 29

스테반의 신실한 증언은 후대의 신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박해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신실하게 고난을

겪으라는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스테반은 오순절 이후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 시대의 첫 번째 이기는 자로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신실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6) 그의 삶과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말하고, 용기를 내어 굳건히 서며, 주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하도록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